□ 새내기 일년달력－이때는 이런일이

새내기 열달, 성공의 열쇠는 자기손에 있다!

모든 시작은 서투름을 동반한다. 그래서 시작이란 설레임이고 신선함 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 기대와 호기심이 섞인 눈길로 이곳저곳을 탐색할 그들의 모습이 얼른 보고 싶다.

그들의 시작에 조금의 보탬이 되고자 새내기의 "새내기의 일년나기"을 기획했다. 재학생들에게는 식상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새내기 때를 한 번쯤 반추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될 것이다. <편집자>

── 3월 ──

동문회 MT 신입생 환영회
3일～15일 수강신청 확인기간

오늘 부터 일주일 간은 새내기 환영주간이다. 예비대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낯익은 얼굴들도 더러 있겠지만 그래도 못본 동기나 선배들이 더 많을 것이다. 서먹서먹하겠지만 먼저 인사하고 선배들에게는 밥 사달라고 조르기도 해보자. 후배가 밥 사달라는데 마다하는 선배는 없을 것이다.

── 4월 ──

중간고사

입학한지 한달 쯤 지나고 이제 캠퍼스의 이곳저곳이 제법 눈에 익어온다. 술도 제법 많이 먹었을 테고 사람에 따라서는 곤드레 만드레 된 경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젠 좀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 마냥 널널할 것 같았던 대학생활의 첫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고사는 보통 4월 중순 쯤 치뤄지며 구체적인 시험 시기는 학과 게시판이나 단대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특히 시험 직전시간에는 시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유출(?)되므로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해서는 안된다.

── 5월 ──

대동제 봄농활
18일 개교기념일
24일 CRS 인증시험
26일 2학기 수강신청 강의평가시작

어쨌든 5월은 아름답고 즐거운 달이다. 달력에 표시된 휴일 표시만 봐도 가슴이 넉넉해져 오는데 연중 최대 하이라이트인 대동제 까지 있다. 캠퍼스 이곳저곳이 술렁대고 재미있는 볼거리와 많은 행사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다. 혹시라도 중간고사기간동안 공부를 너무 많이해 머리가 지끈거린 다면 이 기간만큼은 열심히 놀자. 대동제때의 기분도 헌내기가 되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많은 경험자들의 중론이므로.

── 6월 ──

－10일 강의 평가 수강신청
11일～21학기말 시험
11일～28일 성적 입력
23일 하계방학
30일－하계 계절학교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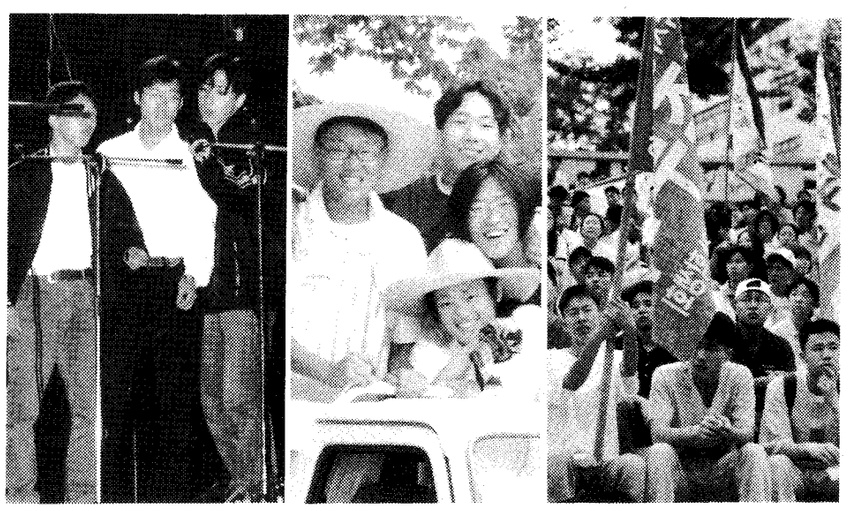
날이 점점 더워져서 사람들의 소매끝이 상향곡선을 그리는 이달. 새내기들이 대학생이 된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다. 그간 "대학이 어떤 곳일까"하면서 초롱초롱하게 굴리던 눈망울도 이쯤 되면 멈칫해진다. 눈치가 빠른 새내기라면 대학이란 겉으로 보기엔 이세상 모든 낭만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그안에는 많은 고민과 보이지 않는 치열함도 함께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마음이 뒤숭숭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이달에는 2학기 수강신청과 학기말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7월과 8월──

여름농활
－7월22일 계절학교
8월11일－8월26일 2학기 등록

졸업한 많은 선배들이 대학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방학 때문일 것이다. 물론 방학이 이렇게 긴대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 것은 불만이지만 두 달 남짓한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는 평생을 가도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 많은 학생들은 방학동안 정말 방안에서만 지내는 것 같다. 물론 꼼꼼한 계획이 있다면야 어디서 무엇을 하건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두달을 다 보낸다는 사실이다.

"새내기 여러분, 필했는지도 모르게 얼른지나간 방학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이라 막연하겠지만 꼭 계획을 짭시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활, 알찬 일년을 설계하자

□ 책읽기의 방법론

어려운 책은 체계적으로 읽어라

고등학교 때 서점에 참고서를 사러 가거나 신문을 보면서 "대학에 가면 이책은 꼭 읽어야 겠다."고 마음먹은 책이 여럿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학에 와서 그 책들을 챙겨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고전이란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송받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라는 말처럼 재미있고 쉽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면 책한 권 읽어내기가 간단치 않다.

마치 입에 쓴 약같은 책들. 꼭 읽어야 하지만 잘 읽혀지지 않고 몇장 읽다 보면 졸음만 몰고 오는 책들을 읽는데는 "기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이다. 자신이 그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쉽사리 그 묘미를 알 수 없는 고전들이나 사회과학서적을 읽을 때에는 인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책을 펼쳐 차례를 자세히 보자. 차례를 자세히 훑어 보는 것만 해도 독서의 3할은 해낸 셈이다. 차례는 책의 구성과 지은이의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차례를 잘 보면 책의 대략적인 구도를 점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서문에 자신의 뜻을 밝히기 때문에 서문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제 책을 한 번 쭉 훑어 보자. 재미있는 사진은 없나?어떤 표를 썼나 편집은 미려한가? 제목은 어떻게 표기했나? 여기 까지 해냈다면 바로 책을 덮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명성의 비결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테니까.

성질이 급한 독자는 그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책을 읽느냐고 하겠지만 장수가 넘어간다고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독서의 의의는 독서자체가 아니라 독서이후에 있으며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홍유리 기자〉

── 9월 ──

1일 개강
1일～13일 수강신청 확인 기간

가을이라 가을 바람이 불기는 커녕 여전히 더운 바람만 솔솔 부는 9월. 숫자가 주는 만복감과 이제 2학기라는 생각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된다. 특히 8월말에 은행에 갔다낸 현금뭉치가 아른아른 할 것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등록금. 그것을 마련하시느라 애쓰셨던 부모님의 노고를 생각하는 대학생이 되자.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새로 시작하자. 방학때 해오던 아르바이트도 좋고 책읽기도 좋고 동아리 활동도 좋다. 문제는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이다. Steady and Slow wins the race! 꾸준함 만이 자신을 바꾼다.

── 10월 ──

중간고사
가을 농활

4월의 벚꽃도 아름답지만 10월의 캠퍼스는 정말 멋지다. 곳곳에 지는 낙엽과 울긋불긋한 고황산. 해마다 낙엽을 책갈피에 끼워두는 것도 나중에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다.이 달엔 무엇을 할까?보통 사람들은 10월을 독서와 사색의 달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연애.기회가 닿는다면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한 세계에 함몰되지 않는 지혜와 사람에 대한 책임감 역시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 11월 ──

22일 CRS 인증시험
24일－2학기 강의 평가 98 1학기 수강신청

캠퍼스는 다시 분주하다. 곳곳에 걸린 플랭카드 "몇월 몇일 도서관 시청각실 ○○기업 설명회" 와 도서관에 늘어선 4학년 선배들의 모습은 새내기들에게도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남긴다. "언젠가는 나도 사회인이 되겠지?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마냥 있어서는 안될 텐데. 영어라도 해야겠다."

고시열풍이나 컴퓨터에 대한 관심,토플 토익등으로 대변되는 취업난은 이제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왜 대학에 가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던 고3때 처럼 지금의 취업준비생들도 "무엇을 하기위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보수높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사실이다.

옛말에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두 번 실수는 하지말아야 하고 세 번 실수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학이야 별 생각 없이 올 수도 있었지만 평생 자신의 길을 결정 하는 직업선택에 있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않될 것이다. 비결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견하는 치밀함. 자신이 무엇을 꿈꾸는가를 되묻고 그꿈이 스스로에게 떳떳한가를 되묻고 그래도 부끄럼이 없다면 무엇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것인지를 생각하자. 밑그림이 그려져야 색칠도 멋지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학생회 선거. 만 이십세가 안된 여러분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겠지만 당당한 경희의 일원으로써 학생회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아니 꼭 참여해야 겠다. 자신이 뽑은 사람이 당선되면 기분도 좋고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생긴다. 잊지말자! 경희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희를 만드는 것임을.

── 12월 ──

10일－20일 학기말 시험
10－27일 성적 입력
22일 동계 방학

매서운 겨울 바람. 바람과 함께 새내기라는 이름도 사라져 간다. 3개월 후면 여러분도 명실공히 헌내기의 대열에 들어서며 다음달이면 1년전 여러분들과 비슷한 모습의 입시생들이 시험을 치를 것이다. 그들이 캠퍼스를 누빌 쯤이면 모르긴 해도 지갑에 서너명의 밥값은 넣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겨울 바람속에서는 동기들도 사라져 간다. 하나 둘 떠나는 군대.아니 현역은 "어둠의 자식"이고 면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말처럼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것이 군대이다. 어차피 가야 한다면 빨리 가는데 낫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2학년은 마치고 가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경험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바는 군입대를 전후한 갈등과 방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스무살의 청춘. 군생활 2년도 아까운데 거기다 마음앓이까지 추가 할 필요는 없다.

그럭저럭 한해가 지났다. 대학생활 일년의 느낌표가 어떤가? 물론 각자 생활과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기쁨의 느낌표는 못되더라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번지는 뿌듯함이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이라면 3년 뒤에도 훌륭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최수정기자〉

열린 교육, 투명 행정을 표명해 온 경희대학교는 96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경희대학교 추가경정 예산공고

추가경정자금예산서(교비회계 및 기성회비회계)
(1996. 3. 1～1997. 2.28)

기관명 : 경희대학교 (단위 : 백만원)

수입 과목	금액	지출 과목	금액	수입 과목	금액	지출 과목	금액
1. 등록금 수입	(91,088)	1. 보수	(60,147)	6. 고정자산매각수입	(4)	(5)실험실습비	2,059
(1)입학금	2,613	(1)교원보수	43,483	(1)기계기구매각대	2	(6)논문심사료	205
(2)수업료	55,768	(2)직원보수	16,664	(2)집기비품매각대	2	(7)학생지원비	782
(3)기성회비	30,134	2. 관리운영비	(18,130)	7. 고정부채입금	(563)	(8)종합시험료	43
(4)단기수강료	2,573	(1)건축물관리비	7,539	(1)장기차입금차입	563	(9)기타학생경비	1,944
2. 전입 및 기부수입	(41,333)	(2)장비관리비	504	8. 미사용전기일월자금	(2,026)	(10)입시수당	492
(1)정상비전입금	4,654	(3)조경관리비	483			(11)입시경비	1,111
(2)법정부담전입금	1,462	(4)박물관관리비	47			4. 교육외비용	(1,034)
(3)자산전입금	12,367	(5)시설용역비	364			(1)지급이자	1,033
(4)부속병원전입금	7,163	(6)보험료	60			(2)잡손실	1
(5)특별회계전입금	1,489	(7)리스·임차료	87			5. 전출금	(2,196)
(6)일반기부금	129	(8)기타시설관리비	621			(1)특별회계전출금	2,196
(7)지정기부금	1,711	(9)여비교통비	712			6. 예비비	(971)
(8)연구기부금	3,620	(10)차량유지비	179			7. 투자와기타자산지출	(3,726)
(9)시설·설비보조	1,729	(11)소모품비	503			(1)투자유가증권매입대	2
(10)도서관보조	696	(12)인쇄출판비	337			(2)연구기금적립	1,581
(11)자구노력지원	670	(13)난방비	496			(3)건축기금적립	100
(12)기타보조금	5,643	(14)전기, 수도료	979			(4)장학기금적립	1,150
3. 교육부대수입	(2,444)	(15)통신비	497			(5)기타기금적립	851
(1)입학원서대	82	(16)세금과공과	665			(6)전신,전화보증금지출	2
(2)수험료	1,472	(17)지급수수료	145			(7)임차보증금지출	40
(3)증명료	120	(18)복리후생비	533			8. 고정자산매입지출	(31,076)
(4)대여료 및 사용료	428	(19)교육훈련비	363			(1)토지매입비	276
(5)논문심사수입	117	(20)일반용역비	192			(2)기계기구매입비	9,883
(6)실습수입	9	(21)업무추진비	489			(3)집기비품매입비	2,148
(7)기타교육부대수입	216	(22)홍보비	656			(4)차량운반구매입비	226
4. 교육외수입	(4,911)	(23)회의비	290			(5)도서구입비	1,969
(1)예금이자	3,755	(24)행사비	1,224			(6)박물관유물구입비	30
(2)잡수입	1,156	(25)기타운영비	165			(7)건설가계정	16,501
5.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3,255)	3. 연구·학생경비	(26,667)			(8)무형고정자산취득비	43
(1)투자유가증권매각대	1	(1)연구비	9,623			9. 고정부채상환	(1,677)
(2)연구기금인출	128	(2)연구관리비	63			(1)장기차입금상환	1,168
(3)장학기금인출	20	(3)장학금	1,382			(2)차관상환	509
(4)기타기금인출	3,106	(4)학비감면	8,963	합 계	145,624	합 계	145,624

1997. 3. 3
경희대학교 총장 조정원

부속병원 추가경정자금예산서
(1996. 3. 1～1997. 2. 28)

기관명 : 경희의료원 (단위 : 백만원)

수입 과목	금액	지출 과목	금액
1. 의료수익	(144,124)	1. 의료비용	(121,174)
(1)의료수입	142,174	(1)인건비	55,127
(2)의료부대수입	1,950	(2)재료비	46,547
2. 의료외수입	(2,108)	(3)관리비	19,251
(1)의료외수입	2,108	(4)의료교육연구비	249
3. 기타수입	(40)	2. 의료외비용	(21,649)
(1)기타수입	40	(1)의료외 비용	21,649
4. 전기이월액	(6,166)	3. 예비비	(1,524)
		(1)예비비	1,524
		4. 건설비등	(2,233)
		(1)건설비등	2,233
		5. 차입금상환	(167)
		(1)차입금상환	167
		6. 차기이월	(5,691)
합 계	152,438	합 계	152,438

1997. 3. 3
경희대학교 총장 조정원

법인일반회계 추가경정 자금 예산서
(1996. 3. 1－1997. 2. 28)

기관명 : 학교법인고황재단 (단위 : 백만원)

수입 과목	금액	지출 과목	금액
1. 전입 및 기부 수입	(32,670)	1. 인건비	(749)
(1)전입금수입	16,182	(1)직원인건비	749
(2)기부금수입	15,859	2. 관리운영비	(823)
(3)국고보조금 수입	629	(1)시설관리비	165
2. 교육외 수입	(2,372)	(2)일반관리비	336
(1)예금이자수입	2,000	(3)운영비	322
(2)수익재산수입	2	3. 연구학생경비	(415)
(3)기타교육외수입	370	(1)장학금	415
3.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1,020)	4. 교육외 비용	(27)
(1)특정기금 인출수입	1,020	(1)기타교육외비용	27
4. 고정자산 매각수입	(286)	5. 전출금	(19,946)
(1)유형고정자산매각수입	286	(1)전출금	19,946
5.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16,870)	6. 예비비	(540)
		(1)예비비	540
		7.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9,120)
		(1)투자자산지출	4,100
		(2)특정기금적립	5,000
		(3)기타자산지출	20
		8. 고정자산 매입지출	(328)
		(1)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328
		9. 차기이월자금	(21,270)
합 계	53,218	합 계	53,218

1997. 3. 3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장 최태섭

법인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1996. 3. 1－1997. 2.28)

기관명 : 학교법인고황재단 (단위 : 백만원)

수입 과목	금액	지출 과목	금액
1. 전입 및 기부 수입	(1)	1. 인건비	(344)
(1) 기부금수입	1	(1) 직원 인건비	344
2. 교육외수입	(1,901)	2. 관리운영비	(609)
(1) 예금이자수입	29	(1) 시설관리비	134
(2)수익재산수입	1,551	(2) 일반관리비	416
(3) 기타교육외수입	321	(3) 운영비	59
3.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3,245)	3. 교육외비용	(31)
(1) 투자자산수입	3,245	(1) 지급이자	1
4. 고정자산 매각수입	(38)	(2) 기타교육외비용	30
(1) 유형고정자산매각수입	38	4. 전출금	(2,380)
5. 고정부채입금	(855)	(1) 전출금	2,380
(1) 장기차입금	250	5. 예비비	(124)
(2) 기타고정부채	605	(1) 예비비	124
6. 이익 잉여금 증가	(1)	6.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1,459)
7.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5)	(1) 투자자산 지출	1,453
		(2) 특정기금 적립	6
		(3) 기타자산지출	－
		7. 고정자산 매입지출	(118)
		(1)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118
		8. 유동부채상환	(1)
		(1) 단기차입금상환	1
		9. 고정부채상환	(650)
		(1) 장기차입금상환	650
		10. 기본금지출	(200)
		(1) 출연기본금지출	200
		11. 차기 이월자금	(130)
합 계	6,046	합 계	6,046

1997. 3. 3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장 최태섭